

# “두 번 속지 않겠다”

## 조계종, 낙단보 유역에 CCTV 설치·직원 파견 등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낙단보 유역 공사 강행에 대한 조계종은 4월 13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에는 조계종의 시정 요구를 문화재청이 즉각 수용했지만 불교계에서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4월 13일 문화부장 효탄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미등 스님과 문화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문화재청 측은 최광식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엄승용 문화재정책국 국장, 김창준 문화재보존국 국장이 배석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병두 중무관이 함께했다.

이 날 항의방문은 양측 관계자만 참석한 채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계종은 이 자리에서 낙단보 공사 강행에 대한 항의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사전 통보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교적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마무리 됐으며 낙단보 유역에서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순수한 옹벽 공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광식 문화재청장과 조계종은 조계종 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문화재청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올해 문화재청도 개청 50주년인 만큼 ‘조계종대장경 조성 1000년, 문화재청 개청 50년’의 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국민들이 석굴암의 가치를 한층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올해 석굴암을 3D 정밀 입체 영상으로 제작·보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종단이 낙단보 유역 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제2 마애불 발굴을 우선하라는 요구에 대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유감표명과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전폭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이미 양측의 협의를 한 번 파기한 전례가 있는 문화재청의 태도를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더구나 이번 기회에 4대강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 강력

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범용 스님은 “문화재청이 유감 표명을 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전문가와 종단이 참여하는 지표조사와 4대강 공사구간의 문화재 전면 재조사 등 종단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문화부도 문화재청의 이례적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항의 방문 이후 낙단보 유역에 2명의 실무자들을 파견해 교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낙단보 인근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매일 마애불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해국 스님도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문화부는 14일 책임자급 실무진이 낙단보에 직접 내려가 현장 확인 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설치, 문화부 사무실에서 낙단보 마애불 인근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심주완 문화부 팀장은 “문화재청의 이번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부에서는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미니인터뷰

#### “문화재청의 진정성을 보이겠습니다”

문화재정책국 엄 승 용 국장



“불교계의 유감 표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의 항의 방문에 대해 엄승용 문화재정책국 국장은 사전에 불교계에 미리 통보하지 못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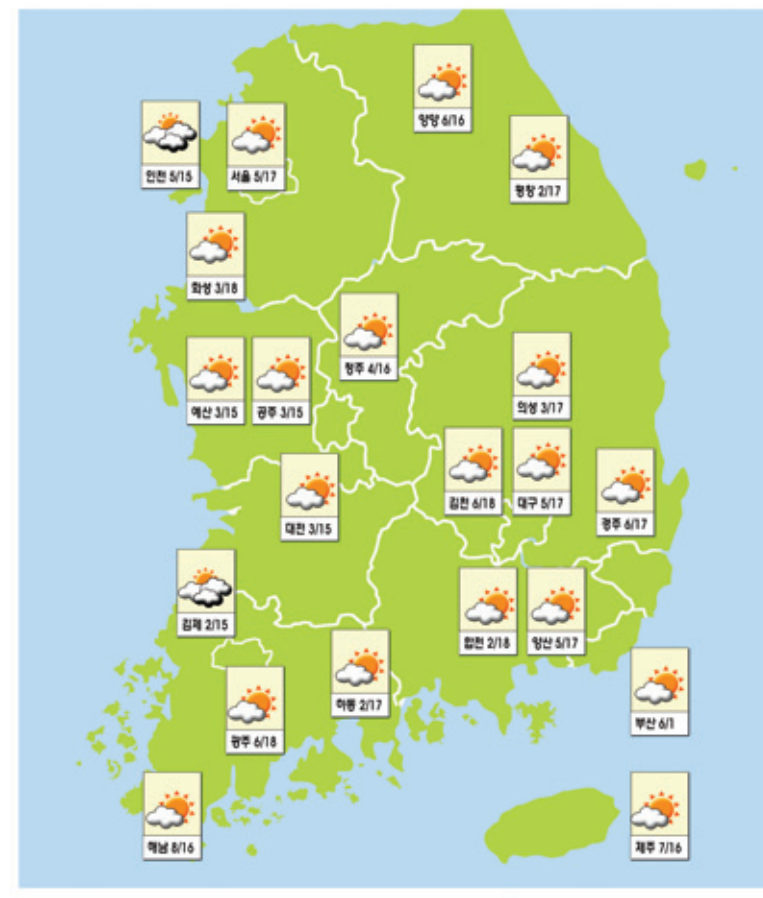
엄승용 국장은 또 이번 공사는 순수한 옹벽 공사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주장처럼 4대강 공사 등 개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제2 마애불 발굴도 문화재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승용 국장은 “추가 발굴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사는 잠정 중단할 것입니다. 불교계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 이주의날씨 4월 넷째 주(4월 20~26일)

#### 구름 많이 끼고 흐림...한 때 비 소식



주요 7개지역 날씨

지역	22일(금요일)	23일(토요일)	24일(일요일)	25일(월요일)	26일(화요일)
서울	구름조금 6/19	흐리고비 11/15	흐린후끈 11/16	맑음 8/21	구름많음 9/21
부산	구름조금 7/18	흐리고비 12/17	흐린후끈 13/18	맑음 11/19	흐리고비 13/18
대구	구름조금 7/20	흐리고비 13/19	흐린후끈 14/20	맑음 10/23	흐리고비 13/18
대전	구름조금 4/20	흐리고비 11/18	흐린후끈 13/19	맑음 9/21	구름많음 8/22
광주	구름조금 7/21	흐리고비 12/18	흐린후끈 14/19	맑음 11/20	흐리고비 13/18
강릉	구름조금 6/19	흐리고비 11/15	흐린후끈 11/16	맑음 8/21	구름많음 9/21
제주	구름조금 10/20	흐리고비 13/17	흐린후끈 14/18	맑음 12/19	흐리고비 14/17

25개 교구사별 (해동/해침)	25개 교구사별 날씨(℃)	25개 교구사별 강수량(%)	
지역	20일(수요일)	지역	20일(수요일)
조계사	05:52/19:06	조계사	구름조금 6/19
용주사	05:53/19:12	용주사	구름조금 5/21
신흥사	05:44/19:06	신흥사	구름조금 8/20
월정사	05:46/19:05	월정사	구름조금 2/19
법주사	05:51/19:08	법주사	구름조금 4/20
마곡사	05:51/19:08	마곡사	구름조금 3/17
수덕사	05:55/19:11	수덕사	구름조금 3/17
직지사	05:49/19:05	직지사	구름조금 6/19
동화사	05:47/19:03	동화사	구름조금 6/19
은혜사	05:48/19:02	은혜사	구름조금 6/19
고운사	05:46/19:03	고운사	구름조금 5/18
불국사	05:45/19:00	불국사	구름조금 6/18
해인사	05:50/19:04	해인사	구름조금 3/18
쌍계사	05:50/19:04	쌍계사	구름조금 3/18
통도사	05:47/19:00	통도사	구름조금 6/18
법어사	05:47/19:00	법어사	구름조금 7/18
금산사	05:55/19:10	금산사	구름조금 2/16
선운사	05:55/19:10	선운사	구름조금 2/16
백양사	05:55/19:08	백양사	구름조금 7/20
화엄사	05:53/19:06	화엄사	구름조금 7/20
송광사	05:53/19:06	송광사	구름조금 7/20
대흥사	05:57/19:09	대흥사	구름조금 9/18
관음사	05:59/19:08	관음사	구름조금 10/20
봉선사	05:53/19:12	봉선사	구름조금 2/20

자료제공=케이웨더 www.kweather.co.kr (02)360-2200

## 문화유산지구 케이블카 노선 금지해야

### 불교계, 국립공원위 노선 논의에 수행환경 훼손 우려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노선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불교계가 사찰 경관을 훼손을 우려하고 나섰다.

‘불교와 정책’(대표 영공)은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문화유산지구에 케이블카가 개설될 경우 사찰 위로 관람객들이 승차한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진경이 연출된다. 이 경우 사찰의 경관과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불교와 정책’ 운영위원 범용 스님은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신설된 문화유산 지구 훼손과 국토 파괴행위로 국립공원 설치 목적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불교와 정책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불허하고, 사찰 등 역사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종단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도 선로회피 지역에 문화유산지구를 추가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미 케이블카 설치지역에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 회피항목에 문화재·전통사찰의 보존까지 및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포함, 실시계획 및 공사시 종교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공사시간 조정 및 보호대책 강구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 요구들은 지난 해 12월 ‘자연공원 사도(케이블카)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원안 또는 수정 반영됐다.

사회부 관계자는 “선로회피지역에 문화유산지구가 추가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사찰 수행환경 보호 위해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중광사, 국책 공사로 사찰 곳곳 균열

###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 말사인 중광사 신도들이 국책 공사로 범죄 활동의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서 공주시 반포면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1-3구간 건설 사업이다. 중광사 신도들과 스님들은 공사 기간 중

계속된 발파로 인해 식수가 고갈되고 사찰 곳곳에 균열과 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피해를 우려해 저수역·저지동 공법을 시행 중이며 균열된 곳을 보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현대불교신문사·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내인파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부출가 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 마하연 투어 여행 상품 안내

미얀마	중국·티베트	태국·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발일: 6월 8일, 6월 21일</li> <li>- 양곤   바간   만달레이   해로 7일</li> <li>1,690,000원</li> <li>출발일: 5월 18일, 5월 27일</li> <li>- 양곤   바간   해로 6일</li> <li>1,590,000원</li> <li>양곤   바간 5일 1,090,000원</li> <li>* 모두 포함된 일정, 추가요금 없습니다.</li> <li>* 확정된 날짜 이외에도 출발 가능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월, 6월 출발</li> <li>- 지정도량</li> <li>구화산   황산   향주 5일</li> <li>1,090,000원</li> <li>- 관음도량</li> <li>구화산   보타산   황산 6일</li> <li>1,140,000원</li> <li>- 마음은 다시 티베트로</li> <li>하늘열차 티베트 8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발일: 5월 18, 19, 22, 24, 29, 31일</li> <li>방콕   파타야 5일 599,000원</li> <li>특전: 초특급리조트, 태국특식 3회, 다양한 관광</li> <li>출발일: 5월 20, 21, 24, 28일</li> <li>시엠립(앙코르왓) 특급 5일 499,000원</li> <li>특전: 특급호텔, 곤돌라투어, 특식</li> <li>* 유류세 및 각종 팁 불포함</li> </ul>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베트]

##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파이에 위치한 5만평 대지

###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 초빙 안내

####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격: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1년에 1주일 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통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ALAJA

이사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불교지도자협회